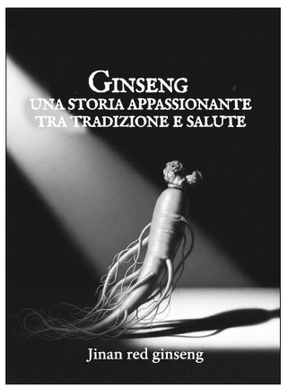
'진안홍삼 홍보 책자' 유럽 시장 주목

진안홍삼연구소, '진안홍삼, 신화와 과학 사이-약초의 왕' 홍보 책자 제작

진안군은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인·홍삼 분야 최초로 바티칸 수도원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한 데 이어, 2025년 지난 19일에는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이 직접 진안을 방문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교류를 확대해 나간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협업의 연장선으로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현동윤)에서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홍보 책자는 진안군 첫 외국인 홍보대사이기도 한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결실을 본 성과물로 서양 약초학의 본고장인 유럽수도원 전통의학과 동양의 프리미엄 진안홍삼을 융합·검증한 유례없는 홍보·소개 책자로 특히, 이탈리아 현지인이 진안홍삼의 학술적인 효능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특산품 홍보와는 차별화된다.



진안홍삼 홍보 책자

인삼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경험과 전통 속에서 가치가 축적되어왔고, 현대에 들어서는 인삼과 홍삼의 주요 성분과 생리활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이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가치가 현대 과학의 언어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웰니스·의학·미용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홍보 책자는 단순히 '진안홍삼이 좋다'는 홍보에서 벗어나 진안홍삼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 현지에서 급성장 중인 뷰티·웰니스 시장 진출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전춘성 진안홍삼연구소 이사장(진안군수)은 "바티칸 수도원과의 교류에서 출발한 이번 연구용역과 홍보 책자 출간은 진안홍삼이 세계적인 웰니스·뷰티 소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럽 현지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진안홍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평등과 공존' 작품 심사 본격화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 201개국 2159편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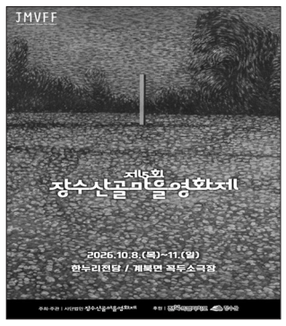
장수군은 (사)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의 작품 공모를 마감한 결과 합작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201개국에서 총 2,159편이 출품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는 공모 기간이 지난해보다 10일가량 짧았음에도 참여 국가가 18개국이 증가해 장수산골마을영화제를 향한 세계 영화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줬다.

국가별 출품작은 이란이 23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230편, 대한민국 148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현재 영화제의 핵심 주제인 '평등과 공존'에 부합하고 마을공동체의 문화와 전통, 인권, 환경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장수 한누리전당과 계북면 일원에서 열려



세계 각구과 마을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평등과 공존의 영화적 연대'를 주제로 국내외 마을영화 상영을 비롯해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 △다문화 공동체 포럼 △아시아 소규모 영화창작 플랫폼 구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임신부용 자동차 안전띠 무료 대여

무주군, 임신·출산용품 무료 대여 품목에 추가 운영

무주군이 임신부의 안전한 차량 이동을 돕기 위해 '임신부용 자동차 안전띠'를 무료로 대여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의 복부 압박을 줄여 태아와 산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8월부터 기존 임신·출산용품 무료 대여 품목에 임신부용 자동차 안전띠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대여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의료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다.

안전띠를 대여할 때는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실제 착용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임신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부용 자동차 안전띠는 일반적인 안전띠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복부 압박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외래 진료나 정기검진 등 차량 이동이 필요한 임산부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군,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니터링·교육 실시

장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9일부터 자살수단 차단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수단 차단사업은 자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자살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과 농약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마트와 농약사, 약국 등 총 33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방문객에게서 자살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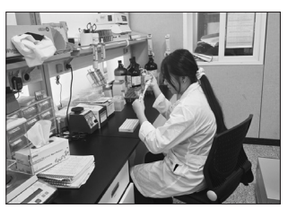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주와 직원들에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안심 먹거리' 생산 주력

장수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적극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 2대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 2대 등 첨단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에 따른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군은 매년 농산물과 토양, 수질 등 500여 점의 시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필요한 분석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엽채류와 과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올바른 살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특히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 입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두고 수확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집중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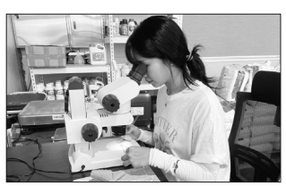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농기센터, 딸기 재배 농가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운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노금선)는 딸기 정식 시기를 앞두고 관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미경을 통해 묘의 생장점을 정밀 관찰하여 분화 여부를 확인하는 '화아분화 검경 기술'은 알맞은 정식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경을 희망하는 관내 딸기 재배 농가는 정식 전 딸기묘를 무작위로 5주 정도 채취하여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으로 직접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검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8일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백운면, 농어촌 기본소득 31일부터 지급

진안군 백운면(면장 안호숙)은 지난 20일 백운면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월 신청자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7월 신청자는 총 1,701명으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 2명과 전출자 1명을 제외한 1,698명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백운면은 8월 31일부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액은 7월과 8월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면서 주민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숙 면장은 "이번 첫 지급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자 확인과 안내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벌목현장서 굴착기 추락… 50대 운전자 숨져

무주의 한 벌목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5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3분께 무주군 적상면의 한 벌목공사장에서 굴착기가 약 30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한편, 경찰은 굴착기가 추락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